

■ 특집 ■

68운동 전후 알제리 이주민과 프랑스 언론  
- 르몽드지의 알제리 이주민 관련 보도(1962년-1976년)  
를 중심으로-\*

이 민 진

I. 서론

프랑스의 알제리 이주민은 오랫동안 ‘외국인’, ‘아랍인’, ‘무슬림’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여겨지며 반이주민정서의 주요 대상이 되어왔다.<sup>1)</sup> 그들의 이주는 알제리 전쟁을 기점으로 대규모화되었다.<sup>2)</sup> 비유럽계 이주민 중 가장 규모가 큰 이방인 그룹으로 성장한 알제리인은 외모, 언어, 아랍식 이름, 종교 등의 이질적 요소로 인해 기존 프랑스 사회의 구성원들과 ‘다른’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알제리 전쟁과 본국에서 자행된 테러는 프랑스인들이 알제리 이주민을 불편한 존재로 느끼게 하였고, 이는 증오의 감정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후 지속적인 알제리 이주민의 규모 확대, 1970년대 경제 불황 및 실업률 상승은 그들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고, 나아가 제도적 차별로 이어졌다. 1973년 프랑스·알제리 노동 이주 조약 종결과 1974년 노동 및 가족 이주 중단, 그리고 1976년 가족 재결합 법령에서의 알제리 이주민 제외로 이어지는 제도적 조치들은 프랑스로 유입되는 알제리인들이 기피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사회의 엄격한 이민 통제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프랑스 언론의 알제리 이주민 인식에 관한 역사적 고찰: 르몽드지 기사(1954년-1976년)를 중심으로」(건국대학교, 2019)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 1) Achour Ouamara, *Le discours désimigré: essai* (Paris: bouchène, 1993), pp. 77-80; Yvan Gastaut, “Evolution des Désignations de l'étranger en France (1960-1990)”, *Cahiers de la Méditerranée*, 54, 1997, p. 19.
- 2) 박단, 「2차 세계대전 이후 알제리인의 프랑스로의 이주와 정착」, 『한국프랑스학논집』, 53, 2006, 180-181쪽.

요구는 북아프리카 이주민, 그 중에서도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1980년대 사회당의 집권은 프랑스 사회 내 이주민의 인권과 사회적 차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이주민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1984년 행해진 ‘아랍 출신 이주민들의 행진(La marche des Beurs)’과 같이 이주 배경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무슬림 이주자를 둘러싼 각종 사회적 문제, 극우정당의 외국인 혐오 정책 등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경색시켰다. 특히 2005년에 발생한 프랑스 교외지역 소요 사태 당시 프랑스 정부와 언론이 보여준 태도는 이주민, 특히 알제리를 포함한 마그레브(Maghreb)<sup>3)</sup>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알제리 전쟁 이후 프랑스 내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sup>4)</sup> 특히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3) 마그레브 아랍 연합(Union du Maghreb arabe)을 기준으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그리고 모리타니가 이 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를 의미한다. 이들 국가는 프랑스 무슬림 인구의 대표적인 출신지로 꼽힌다.

4) 알제리 이주민의 이주 역사를 다룬 연구는 Abdelmalek Sayad, David Mac-ey trans., *The Suffering of the Immigrant* (Cambridge: Polity Press, 2004); Neil MacMaster, “Des Révolutionnaires Invisibles: Les femmes Algériennes et l’organisation de la « Section des Femmes » du FLN en France métropolitaine”,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59-4(2012)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박단, 「2차 세계대전 이후 알제리인의 프랑스로의 이주와 정착」,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3호(2006); 은은기, 「프랑스의 알제리인 이민 노동자의 동일체 의식 -알제리 전쟁(1954~1962) 시기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제55호(1998)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 및 혐오에 대한 연구는 Neil MacMaster, *Colonial Migrants and Racism*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7); Vincent Geisser, *La nouvelle islamophobie* (Paris: La Découverte, 2003); Yvan Gastaut, *L’immigration et l’opinion en France sous la Ve République* (Paris: Seuil, 2000) 등이 있으며, 국내 연구로는 박선희, 「프랑스 이민정책과 사르코지(2002-2008년)」, 『국제정치논총』, 50(2)(2010); 엄한진,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2005년 ‘프랑스 도시외곽지역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2007);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1-1집(2010) 등이 있다.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연구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알제리 이주민의 권리투쟁과 차별 및 배제에 대한 항거는 권력의 통치수단 중 하나인 치안담론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언론을 통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위험한 존재’로 묘사되었다.<sup>5)</sup> 그러나 이는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1980년대 이후 사회적 현상으로 한정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성은 프랑스 내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낳는다.

1980년대 이전에도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반감은 존재했으며, 이에 대한 그들의 집단행동 역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식민지 알제리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이전의 시위와 달리, 1970년대에 발생한 알제리 이주민의 저항 운동은 프랑스 내 거주자의 자유, 노동자로서의 존엄성·평등 등 프랑스 사회가 자신들에게 가하는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sup>6)</sup> 이러한 변화의 기점을 68운동으로 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명확한 관계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이주민 문제는 운동에서 큰 아젠다로 주목받지 못했으며, 이주민들 역시 운동으로 변화된 것은 없다고 느꼈다.<sup>7)</sup> 그러나 그들은 68운동에 참가하면서 프랑스 사회와 이전에 없었던 교류를 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주장을 사회에 드러낼 새로운 저항의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sup>8)</sup> 1970년대 노동단체들이 이주민과 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68운동 전후 프랑스 언론의 알제리인 관련

---

5)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엄한진, 『프랑스의 이민문제』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7); 이기라·양창렬 외, 『공존의 기술』 (서울: 그린비, 2007); 박선희, 「프랑스 이민정책과 사르코지(2002-2008년)」; 류지석·장세용, 「프랑스 방리유 문제와 이민자 통합정책 -차별과 배제의 공간정치-」, 『대구사학』, 제111호(2013) 등이 있다.

6) 1970년대 이전에 발생한 알제리 이주민들의 집단적인 시위는 식민주의와 알제리 전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알제리 독립 이후에도 이주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식민지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https://www.huffingtonpost.fr/benjamin-stora/comment-les-immigres-ont-eux-aussi-incarne-mai-68\\_a\\_23418172/](https://www.huffingtonpost.fr/benjamin-stora/comment-les-immigres-ont-eux-aussi-incarne-mai-68_a_23418172/) (검색일: 2019년 02월 03일)

7) 폴린 바커 외, 김용민 역, 『혁명의 현실성』 (서울: 책갈피, 2011), 58-60쪽.

8) Benjamin Stora, “Comment les Immigrés ont eux aussi incarné «Mai 68»”.

기사를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표이다. 분석 시기는 알제리 전쟁이 종결된 1962년 에비앙 조약(Accord d'Evian)부터 알제리인 이주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드러나는 시기로 한정한다.<sup>9)</sup> 언론 보도는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 및 담론 속에 담긴 일반적 프레임을 형성하며, 동시에 그들이 가진 프레임에 영향을 받는다.<sup>10)</sup> 이는 한 사회가 특정 집단에 대해 갖는 사회적 인식을 고찰함에 있어 언론 보도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연구임을 증명한다. 또한 프랑스의 모든 언론 매체를 다룰 수 없는 한계를 인지하고, 분석 대상을 신문으로 제한한다.<sup>11)</sup> 일반적으로 신문이라는 매체는 사회 현상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각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인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당대 사회 인식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서 신문은 전국구로 발행된 일간 정론지를 대상으로 한다.<sup>12)</sup> 판매부수는 해당 신문에 대한 대중의 접근 용이성을 보여주는 척도로써 이는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1968년 전후로 판매부수가 급증하였고, 1975년 기준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한 『르몽드(Le

9) 본 논문에서 알제리인의 프랑스 이주가 법적으로 중단되는 시점을 프랑스 내 외국인 거류민의 가족 재결합에 대한 법(Décret n°76-383 du 29 avril 1976)의 재정에 둔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가족의 프랑스 이주를 합법화하는 이 법에서 알제리인은 배제되었다. Muriel Cohen, "Regroupement familial : l'exception algérienne (1962-1976)", *Plein droit*, n.95(2012).

10) Robert M. Entman,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3, n°4(1993), pp. 52-53.

11) 프랑스 신문은 전통적으로 사실 그대로의 전달보다는 저널리스트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평 기사를 중점적으로 다뤄 왔기에 당대 인식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임종권, 「역사 연구에서 매체의 의미-프랑스 저널리즘의 역사-」, 『승실사학』, 제21권(2008), 339-340쪽.

12) 프랑스의 신문은 정론지, 대중지, 전문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나 스포츠와 같이 전문 분야를 다루는 전문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중지의 경우 도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분석 대상은 정론지로 제한한다. 『라 크루와(La Croix)』, 『뤼마니테(L'Humanite)』 등 특정 당파나 단체의 주장을 전달하는 '이념지'는 사건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기사를 보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Monde)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sup>13)</sup>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연구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알제리 전쟁 이후 프랑스 내 알제리인의 이주 및 정착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2장에서는 1962년부터 1976년까지 프랑스 알제리 이주민의 이주 원인, 정착 과정 등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프랑스 사회의 인식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3장에서는 1962년 3월 19일부터 1976년 4월 20일까지 『르몽드』에 게재된 기사 중 ‘알제리인’ 또는 ‘알제리의’로 해석되는 ‘Algérien’이 제목에 포함된 보도 총 699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알제리 이주민 관련 기사들의 유형, 보도 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알제리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68운동이 프랑스의 소수집단이자 차별의 대상인 알제리 이주민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알제리 독립 이후 알제리인의 이주 문제

1962년 3월 18일 알제리 전쟁 종결 및 알제리 독립으로 인해 프랑스 내 알제리인은 ‘프랑스 알제리 무슬림(Français musulmans d’Algérie, FMA)’이 아닌, ‘외국인’이 되었다. 이제 알제리인의 프랑스로의 여행과 이주는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협약과 규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1962년에 체결된 에비앙 조약(Accord d’Evian)은 알제리인의 프랑스 이주를 규정한 첫 번째 사례이다. 조약에 따라 알제리에서 태어난 토착 알제리인과 프랑스 알제리인(Pied-noir)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13) 『르몽드』의 연간 판매부수는 1960년대 초 182,408부(1962년)에서 1960년대 말 354,982부(1968년)로 증가하였으며, 1975년에는 425,000부를 기록하였다. 이는 1960년에서 1975년 사이 《르 피가로(Le Figaro)》의 연간 판매부수가 2,000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Patrick Eveno, *Histoire du journal “Le Monde” 1944-2004* (Paris: Albin Michel, 2004), p. 245; 성일권, 「프랑스신문의 위기 극복 방안」, 『관훈저널』, 92(2004), 42쪽.

알제리 시민권과 프랑스 국적을 동시에 갖는 것이 허용되었다.<sup>14)</sup> 이는 알제리 독립으로 인해 프랑스 국적을 상실하게 된 프랑스 알제리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었다.<sup>15)</sup> 그러나 프랑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 조항은 독립 이전 프랑스 시민권을 인정받은 토착 알제리인의 프랑스 이주 역시 자유롭게 만들었다. 종전 당시 35만 명이었던 알제리 이주민이 1968년 47만 4천명으로 증가한 것은 예비양 조약이 알제리인의 프랑스 이주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준다.<sup>16)</sup>

당시 프랑스에서는 알제리 전쟁의 기억으로 인해 알제리인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프랑스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제리인이 이주를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당시 프랑스는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었고, 알제리 이주민이 그들에게 유용한 대체재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그러나 더욱 중요한 요인은 알제리 내부에 존재한다. 8년간 지속된 전쟁과 알제리 독립을 반대한 프랑스군의 극우 지하조직인 비밀군사조직(Organisation de l'Armée Secrète, OAS)의

14) 예비양 조약 2장 2조 2절의 “일반법에 따라 시민권을 가진 프랑스 시민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알제리 태생으로 독립일 기준 알제리에서의 10년 이상 상주 및 정기적으로 거주한 경우, 10년 이상의 알제리 거주를 증명할 수 있으며 알제리에서 태어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시민권 행사 조건을 이행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경우, 독립일 기준 알제리에서의 20년 이상 상주 및 정기적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알제리 시민권을 행사하는 프랑스 국민으로 간주된다. 알제리 시민권과 프랑스 시민권은 동시에 행사될 수 없으며, 이 권리는 독립 후 3년간 지속된다. 이후 알제리 국적 취득은 선거권 등록 또는 등록 확인서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이 반려될 경우, 조약에 의거하여 권한을 인정받는다.

15) Muriel Cohen, “Recouplement Familial”, p. 20.

16) 부모가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독립 이전에 지방법에 의거한 시민권(statut civil de droit local)을 획득한 경우에는 알제리 출생 토착 알제리인이라도 프랑스 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예비양 조약이 제시한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알제리인들은 프랑스에 자유로이 진입할 수 있었다. <https://alger.consulfrance.org/Qui-a-conserve-la-nationalite> (검색일: 2018년 11월 02일)

17) 프랑스는 알제리인 이주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후 알제리와 여러 차례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주 제한의 정도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경제 사정에 따라 제한의 정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프랑스의 부족한 노동력 충원을 위해 알제리라는 값싼 노동력 공급원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러는 알제리 내 사회 기반 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또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과 포로들이 전후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알제리 사회는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상황에 직면하였다.<sup>18)</sup> 신생 알제리 정부의 경제 부흥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7년 국내 실업률이 약 75%를 기록하는 등 알제리 내 실업률은 최악의 상태에 달해있었다.<sup>19)</sup> 자국 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알제리인들은 프랑스를 이주의 공간으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알제리 전쟁 기간 동안 약 1만 1천명이었던 연간 이주민 수는 전후 1962년에서 1965년 사이 연 평균 2만 7천명으로 늘어났다.<sup>20)</sup>

프랑스로 이주한 알제리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주거지 확보는 이주 후 알제리인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1962년 이후 프랑스 정부는 본국으로 송환된 알제리계 프랑스인들을 수용할 새로운 주택 건설을 실시했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일드프랑스(Île-de-France)에는 약 100만 가구 이상의 주거공간이 건설되었다. 이는 주로 본국으로 돌아온 알제리 출신 프랑스인과 알제리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다. 알제리 태생의 알제리 무슬림 이주자들은 프랑스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주택 입주가 허용되었다.<sup>21)</sup>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알제리 무슬림 이주민들은 프랑스 내에서 거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전쟁 과정에서 프랑스 사회에 뿌리내린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쟁 기간 동안 프랑스 사회는 알제리 이주민이 밀집 거주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족운동단체와 연결망을 형성하여 프랑스 내 사회 치안을 유린하는 과정을 경험한 바 있었다.

---

18) David Assouline, Mehdi Lallaoui, dir., *UN SIECLE D'IMMIGRATIONS EN FRANCE. Troisième période 1945 à nos jours, Du chantier à la citoyenneté?* (Paris: Syros, 1997), p. 14.

19) 농촌의 경우 남성 경제 활동 인구 중 약 83%가 불안전고용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은 알제리 내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MOINS D'UN ALGÉRIEN SUR QUATRE A DU TRAVAIL”, *Le Monde*, 1967.01.14.

20) Maxim Silverman, *Deconstructing the Nation: Immigration, Racism and Citizenship in Modern France* (NY: Routledge, 2014), p. 43.

21) Paul A. Silverstein, *Algeria in France: transpolitics, race, and na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4), p. 94.

이는 알제리인의 밀집이 지역의 계도화를 발생시키고 가난과 범죄를 유발한다는 두려움을 형성시켰다. 알제리 무슬림 밀집 주택 단지인 낭테르의 카니보(Les Canibouts)와 관련하여 이것이 사회의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 것은, 사회적 편견이 알제리 이주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22)</sup> 이는 알제리 이주민을 프랑스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르게 하였고, 결국 자신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차별받고 격리된 존재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sup>2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이주민들은 프랑스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했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항하고자 했다. 68운동 이후 알제리 이주민들은 집세거부(grèves des loyers)를 통해 노동자 주택건설회사(Société nationale de construction de logements pour les travailleurs, SONACOTRA)의 권위적인 태도와 거주자 감시, 낙후된 주거 시설, 그리고 지나친 임대료 인상 등에 저항하였다. 그들의 조직적 활동은 이민자 정보 지원 그룹(Groupe d'information et de soutien des immigrés, GISTI)과 이민자 지원 단체인 시마드(Comité inter mouvements auprès des évacués, La Cimade)의 지지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975년 1월, 생드니의 로맹 로랑 주택단지(foyer Romain Rolland)에 거주하던 이주민들은 임대료 30% 인상에 대하여 알제리인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조정 위원회(Comité de cordination des foyer)를 결성하고 대대적인 집세거부를 단행하였다. 1976년 4월, 협상 결렬 후 거주자 퇴거 명령이 발표되면서 이주민의 주택 문제는 프랑스 사회의 정치적 문제로 변화하였다.<sup>24)</sup> 이외에도 이민 자격 박탈, 아랍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프랑스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에 대항한 이주민들의 집단행동은

22) <https://www.metropolitiques.eu/Les-quotas-d-etrangers-en-HLM-un.html> (검색일: 2018년 11월 02일)

23) François Lefort, *Du bidonville à l'expulsion: itinéraire d'un jeune Algérien de Nanterre* (Paris: CIEMM, 1980), p. 101.

24) Jean-Philippe Dedieu & Aïssatou Mbodj-Pouye, "The First Collective Protest of Black African Migrants in Post-colonial France (1960-1975). A Struggle for Housing and Right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9, n°6(2016), pp. 958-975.



1972년 미등록 이주자 단식투쟁<sup>25)</sup>, 아랍 노동자 운동(Mouvement des travailleurs arabes, MTA)의 주도로 이루어진 1973년 ‘아랍노동자 총파업’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었다. 노조에 가입하거나 문맹 퇴치를 위한 자원 봉사 단체를 구성하는 것 또한 프랑스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생계를 위해 이들이 본격적으로 정치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1973년 프랑스·알제리 노동 이주 협약 종결과 1974년 유럽출신자와 계절노동자를 제외한 신규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의 수용 금지 정책의 발표는 알제리 이주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제도적으로 제한 또는 차단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프랑스로 유입되는 신규 이주민에 대한 통제 수단에 불과했다. 프랑스 내에는 이미 많은 수의 알제리인들이 주요 이주민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는 여전히 프랑스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 III. 『르몽드』를 통해 본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1962년~1976년)

<표1> 예비양 조약 체결 이후 ‘Algérien’을 제목에 포함한 르몽드지 기사 분류

단위: 건

년도	알제리 정치·경제 관련 기사		알제리 이주민 관련 기사	알제리 전쟁 관련 기사	기타	합계
	프랑스 관련 기사	그 외 기사				
1962	28	87	40	2	7	164
1963	34	59	10	-	2	105
1964	14	29	13	-	5	61
1965	12	36	8	-	2	58
1966	12	48	-	-	4	64

25) 프랑스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1972년 발표된 마르셀랭-퐁타네 공문 (Les circulaires Marcellin-Fontanenet)은 프랑스 내 이주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알제리 이주민과 포르투갈 이주민의 유입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입국과 체류에 대한 강력한 제제는 프랑스에 거주 중이던 이주노동자의 83%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었다. <http://www.histoire-immigration.fr/collections/1972-circulaires-marcellin-fontanet> (검색일: 2018년 11월 01일)

68운동 전후 알제리 이주민과 프랑스 언론

1967	7	20	1	1	5	34
1968	16	11	1	-	2	30
1969	6	11	3	-	1	21
1970	10	2	-	-	3	15
1971	22	13	8	-	4	47
1972	5	8	6	-	1	20
1973	8	5	11	-	3	27
1974	1	3	13	-	3	20
1975	3	6	12	-	4	25
1976	2	5	1	-	-	8
합계	180	343	127	3	46	699

출처: Le Monde, 1962.03.19.-1976.04.30. 기사 재구성

알제리 전쟁을 종결시킨 에비앙 조약 체결 이후부터 프랑스 내 거류민의 가족재결합 법이 발표된 1976년 4월까지 르몽드지에 게재된 기사 중 제목에 ‘Algérien’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는 총 699건이다. <표1>에서 보듯이 그 중 과반수는 알제리의 정치 및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 기사는 주로 알제리 정치계 소식과 알제리산 자원 동향, 그리고 프랑스와 알제리간의 정치적·경제적 교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전후 프랑스와 알제리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가, 알제리의 불안한 정치 상황을 전달함에 있어 언론이 어떠한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대 프랑스 사회가 알제리 이주민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들 기사를 제외할 경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알제리 이주민과 관련된 기사이다. 해당 기사들은 프랑스 내 알제리 이주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는 보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 사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후 프랑스 사회에서 알제리인에 대한 논의가 자국에서 살아가는 알제리 이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 보도 기사는 알제리인이 피해자인 경우와 범법자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 유형에 따른 구분은 <표2>와 <표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81건의 기사 중, 알제리인이 피해를 당한 범죄 보도는 58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의 공권력에 의한 알제리인 피해사건이 관련 기사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알제리 전쟁 당시 알제리인이 가해자인 범죄 보도가 전체 알제리인 관련 범죄 기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수치라 할 수 있다.<sup>26)</sup> 이러한 보도량의 변화는 전후 프랑스 내에서 알제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표2> 알제리 이주민 피해 범죄 기사 유형별 분석(1962년-1976년)

단위: 건

년도	알제리 정치·경제 관련 기사		알제리 이주민 관련 기사	알제리 전쟁 관련 기사	기타	합계
	프랑스 관련 기사	그 외 기사				
1962	28	87	40	2	7	164
1963	34	59	10	-	2	105
1964	14	29	13	-	5	61
1965	12	36	8	-	2	58
1966	12	48	-	-	4	64
1967	7	20	1	1	5	34
1968	16	11	1	-	2	30
1969	6	11	3	-	1	21
1970	10	2	-	-	3	15
1971	22	13	8	-	4	47
1972	5	8	6	-	1	20
1973	8	5	11	-	3	27
1974	1	3	13	-	3	20
1975	3	6	12	-	4	25
1976	2	5	1	-	-	8
합계	180	343	127	3	46	699

출처: Le Monde, 1962.03.19.-1976.04.30. 기사 재구성

26) 알제리 전쟁 기간 동안 르몽드지에 게재된 기사 중, 제목에 'Algérien'이 포함된 알제리인 관련 범죄 보도는 총 127건으로, 그 중 99건의 기사가 알제리인 가해 범죄를 다루고 있다.

〈표3〉 알제리 이주민 가해 범죄 기사 유형별 분석(1962년-1976년)

단위: 건

년도	알제리 정치·경제 관련 기사		알제리 이주민 관련 기사	알제리 전쟁 관련 기사	기타	합계
	프랑스 관련 기사	그 외 기사				
1962	28	87	40	2	7	164
1963	34	59	10	-	2	105
1964	14	29	13	-	5	61
1965	12	36	8	-	2	58
1966	12	48	-	-	4	64
1967	7	20	1	1	5	34
1968	16	11	1	-	2	30
1969	6	11	3	-	1	21
1970	10	2	-	-	3	15
1971	22	13	8	-	4	47
1972	5	8	6	-	1	20
1973	8	5	11	-	3	27
1974	1	3	13	-	3	20
1975	3	6	12	-	4	25
1976	2	5	1	-	-	8
합계	180	343	127	3	46	699

출처: Le Monde, 1962.03.19.-1976.04.30. 기사 채구성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알제리인 피해 범죄 기사들은 14건의 기사가 보도된 1962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들었다가 1970년대에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1970년 이후 프랑스인과 프랑스 경찰에 의한 범죄 기사는 늘어나는 반면, 알제리인에 의한 범죄 기사는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르몽드지의 관심이 알제리 이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보다는 프랑스인이 이들에게 가하는 폭력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1960년대 르몽드지에 나타난 알제리 이주민

1962년에서 1965년 사이에 보도된 알제리인 피해 사건들은 명확한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일례로

파리 생드니 거리(Rue Saint-Denis)의 카페에서 발생한 알제리인 사망사건을 다룬 1962년 7월 28일자 기사를 들 수 있다. 르몽드지는 유럽인과 알제리인 사이에서 우연히 발생한 다툼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보도하였다.<sup>27)</sup> 알제리인과 프랑스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 보도한 1963년 4월 2일자 기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기사에서 사건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프랑스인과 알제리 무슬림 간에 다툼이 발생했다는 사실 뿐이다.<sup>28)</sup>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알제리인 피해 사건과 관련된 보도들이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시기 알제리 이주민의 범죄와 관련하여 르몽드지가 보도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시민들 사이의 갈등, 원한 등 개인적 감정에 기반을 둔 일반범죄였다. 이러한 범죄를 다룬 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기사들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나이·출신지 등의 기초적인 신상정보와 범죄 피해, 가해자의 처벌 수위 정도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알제리 이주민의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사 서술 방식은 알제리 이주민 사이에 발생한 범죄 사실을 전달할 때 유독 두드러진다. 반면에 프랑스인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범죄 행위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서술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알제리인에 의한 프랑스인 의사의 살해사건을 보도한 1962년 5월 7일자 기사에서 르몽드지는 피해자를 “자선활동을 통해 모든 환자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서술하였다. 또한 살해 사건에 대해 ‘잔인(sauvagement)’하고 ‘끔찍한(affreux)’ 사건이라고 표현하였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나이, 체포여부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전달하였다.<sup>29)</sup> 1964년 4월 20일에 보도된 바놀레(Bagnolet)에서 발생한 알제리인의 프랑스인 살해사건 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도 형태를

27) “UN ALGÉRIEN EST ASSASSINÉ PAR DEUX EUROPÉENS”, *Le Monde*, 1962.07.29.

28) “Un Algérien et deux Français blessés”, *Le Monde*, 1963.04.02.

29) “UN ALGÉRIEN POIGNARDE SAUVAGEMENT UN MÉDECIN D'AUBERVILLIERS POUR LE VOLER”, *Le Monde*, 1962.05.07.

확인할 수 있다. 70대의 피해자 부부는 운송회사 관리인으로 일하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가해자는 종종 그들의 집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러 들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가해자는 칼로 그들을 살해했고, 이웃의 신고로 체포되었다.<sup>30)</sup> 르몽드지는 이들 기사를 통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알제리인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렇듯 가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한 기사들은 ‘알제리인’이 범죄자라는 이미지만을 강하게 전달하게 된다.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형성되는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별이라는 범죄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기사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당시 프랑스 사회 내부에서는 알제리인을 프랑스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1962년 10월, 프랑스인이 알제리인을 습격한 사건에 대해 보도한 기사는 범행 동기를 가해자의 진술을 직접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북아프리카인은 더 이상 프랑스에 필요 없다”<sup>31)</sup>는 가해자의 주장은 프랑스인이 알제리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1964년 4월 니스에서 발생한 알제리인 사망 사건을 다룬 보도 역시 사건 발생 원인을 프랑스인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추정하였다. 일반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폭력적인 태도도 심각한 문제로 보도되었다. 알제리인은 술에 취하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경찰의 오해와 폭력에 노출되었다. 또한 체포과정에서 가해진 경찰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연행 과정에서 시력을 잃는 부상을 당했다. 그들의 대한 차별과 혐오는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서 목숨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한편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사회적 논의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만들었다. 그들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신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30) “UN ALGÉRIEN POIGNARDE UN COUPLE DE SEPTUAGÉNAIRES A BAGNOLET”, *Le Monde*, 1964.04.30.

31) “DES INCONNUS ORDONNENT A UN ALGÉRIEN DE REGAGNER SON PAYS”, *Le Monde*, 1962.10.16.

유도하였다.<sup>32)</sup> 프랑스인 스스로도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sup>33)</sup> 따라서 그 수는 적지만 사회적 차별에 기반을 둔 범죄의 보도 기사는 당시 알제리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의 형태는 물론, 그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전개하는 당대 사회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68년 5월의 사회적 분위기는 알제리 이주민들이 새로운 투쟁의 형태를 학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68운동 이전까지 알제리 이주민들의 결집은 프랑스 노동자 단체의 틀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알제리 이주민을 포함하여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주에 의해 통제된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들의 대표적인 거주지인 비동빌(bidonville)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으로 여겨졌다.<sup>34)</sup> 이러한 환경은 알제리 이주민이 프랑스 사회와 교류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와 더불어 알제리 이주민들은 1961년 파리학살과 같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공권력으로부터 강력하게 억압당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알제리 이주민들은 68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지는 않았다.<sup>35)</sup> 그러나 이 운동은 프랑스 내 이주민과 프랑스인들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이 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을 학습할 수 있었다.<sup>36)</sup>

## 2. 1970년대 르몽드지에 나타난 알제리 이주민

1970년대 르몽드지의 기사들은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1971년 이후 알제리인

32) “Manifestation devant le commissariat de Noisy-le-Sec dix-huit musulmans blessés • Opération dans un café des Buttes-Chaumont un Algérien atteint par balle”, *Le Monde*, 1962.06.13.

33) “Un cas de brutalités commises à Paris sur un Algérien”, *Le Monde*, 1962.07.28.

34) François Lefort, *Du bidonville à l’expulsion: itinéraire d’un jeune Algérien de Nanterre*, p. 101.

35) Benjamin Stora, “Comment les Immigrés ont eux aussi incarné «Mai 68»”.

36) 콜린 바커 외, 『혁명의 현실성』, 58-60쪽.

피해 사건을 보도한 총 30건의 기사 중 인종차별적 혐오 범죄는 21건에 달한다. 특히 과잉진압, 폭행, 폭언 등 경찰에 의해 알제리 이주민에게 가해지는 인종차별적 행위와 권위남용은 ‘가혹 행위(sérvices)’<sup>37)</sup>, ‘고의적 폭행(coups volontaires)’<sup>38)</sup> 등의 용어로 표현되었다. 알제리 이주민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부당한 일(Un cas de brutalités)’<sup>39)</sup>이라는 문장으로 표현했던 1962년의 기사와 비교하였을 때, 이를 전달하는 르몽드지의 논조가 보다 강경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르몽드지는 알제리 이주민 관련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통해 해당 범죄와 사회적·제도적 차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알제리 이주민 대상 범죄를 일반적인 치안 문제가 아닌, 이주민이자 무슬림이라는 이질적 존재에게 가해진 차별적 범죄로 보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1968년 이후 알제리 이주민 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한 기사들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 어떠한 문제의식이 존재하였는가를 알려준다.

1968년 1월 12일, 르몽드지에는 알제리 이주노동자의 삶에 대한 보도한 “청년: 알제리인 아마드”가 게재되었다.<sup>40)</sup> 기사를 통해 그려진 알제리 이주민들은 자신들을 거부하는 프랑스 사회로부터 차단되어 그들만의 공동체 속에 고립된 존재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망명자(exilié)’라고 부르며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존재로 인식했다. 기사는 알제리 청년들을 부랑자(truand)로 여기는 프랑스인들의 인식을 비판하며 그들이 프랑스인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sup>41)</sup> 또한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알제리 이주민의 대한 인종차별의 궁극적인 원인이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답습하면서 알제리 이주민의 진실을 보려고

37) “Un Algérien affirme avoir été l’objet de sérvices dans un commissariat parisien”, *Le Monde*, 1971.12.22.

38) “Un brigadier de police est poursuivi pour coups volontaires à un Algérien”, *Le Monde*, 1975.03.17.

39) “Un cas de bturalités commises à Paris sur un Algérien”. *Le Monde*, 1962.07.28.

40) Marcelle Michel, “JEUNES : Ahmed l’Algérien”, *Le Monde*, 1968.01.21.

41) “Nous avons égale,ent voulu montrer aus téléspectateurs aue ces jeunes algériens aux figures si triste, si graves, ne sont pas des truands, mais des gens comme nous.” *Ibid*.



하지 않은 프랑스인의 무관심에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한편 타하르 벤 젤룬(Tahar Ben Jelloun)은 1973년 본인의 기사를 통해 프랑스에서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알제리 이주자에 대한 정보들이 그들에 대한 ‘진실하고 정당한’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sup>42)</sup> 그는 프랑스인들이 알제리인들 역시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릇된 이미지의 수용이 알제리와 프랑스 사이에 왜 전쟁이 발생하고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르몽드지의 범죄 기사 서술 방식의 변화, 인종차별주의 행동에 대한 비판 기사의 증가는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70년대 알제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인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 의사를 전달하는 기사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들이 직면한 차별을 인식하는데 있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1962년에서 1976년 사이 르몽드지를 통해 보도된 알제리인 관련 범죄 중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이 범행 원인으로 작용한 범죄는 전체의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알제리 이주민들은 차별적 행동을 한 대상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순찰 및 검문 작업을 수행하는 경찰을 공격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프랑스인과 구분 짓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에 저항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프랑스에서 정치 활동의 자유는 프랑스 시민에게만 허락된 권리였다. 이민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강제 추방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법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운동에 가담하였다. 알제리 이주노동자의 강제 추방과 관련하여 프롤레타리안

---

42) Tahar Ben Jelloun, “Est-ce bien une vie d’Algérien?”, *Le Monde*, 1973.12.06.

좌파(Gauche prolétarienne, GP)<sup>43)</sup>의 주장을 전달한 1969년 11월 10일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기사에서 GP는 강제추방이라는 정부의 조치를 알제리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라 규정하였으며, 정부의 탄압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4)</sup> 이는 프랑스 사회 내에서 알제리 이주민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대항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의 정치 활동을 지지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다만 차별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1970년대에 르몽드지에 게재된 알제리 이주민의 가해 범죄 기사는 총 5건에 그쳤다. 이들 기사 중 알제리 이주민의 차별에 대한 저항을 원인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강제 추방 명령을 받은 알제리 노동자에 대한 1973년 5월 18일자 기사<sup>45)</sup>와 조선소 주인의 반복적인 모욕이 살인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언급한 1973년 10월 6일자 기사 단 두 건에 불과하다.<sup>46)</sup> 당시 프랑스에서는 미등록 이주자 단식 투쟁, 아랍 노동자 총파업, 주택 투쟁 등 이주민과 관련된 사회적 저항의 중심에 알제리 이주민이 존재했으며, 이민자 지원 단체를 비롯하여 진보적 성향을 띠는 사회 세력들이 그들의 행동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언론의 이러한 보도 형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르몽드지는 기사를 통해 차별에 저항하는 알제리 이주민의 정치 활동 및 이를 지지하는 사회적 여론을 전달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인 보도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그들의 저항운동이 보도 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했거나 적어도 저항을 발생시키는 본질적 원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사회적인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43) ‘자발적 혁명론을 존중하는 마오주의자(mao-spotex)’ 성향을 띠는 프랑스 급진 좌파 집단으로 1968년에 결성되어 1974년까지 존속하였다. 결성 당시 1968년 6월에 해체된 마르크스-레닌주의공산주의청년연맹(Union des jeunes communistes marxistes-léninistes, UJC(ml))의 일부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었다.

44) “Un Algérien est expulsé de France”, *Le Monde*, 1969.11.10.

45) “Un travailleur algérien est sous le coup d’un arrêté d’expulsion”, *Le Monde*, 1973.05.18.

46) “Un ressortissant algérien est condamné à dix ans de réclusion pour le meurtre de son chef de chantier”, *Le Monde*, 1973.10.06.

알제리 전쟁이 종결된 예비양 조약부터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이주 제한 시기까지의 기사들은 알제리 이주민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에서 차별의 대상, 그리고 차별에 저항하는 존재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사를 통해 1970년대에 들어 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부당함에 대한 공감은 프랑스 사회에 확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알제리 전쟁으로 말미암은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혐오감과 더불어 알제리 이주민 관련 범죄 기사들은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일반화를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62년부터 1976년 사이 보도된 르몽드지의 기사들은 점차적으로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들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와 시민들의 반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이는 프랑스 사회 내부에서 알제리 이주민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IV. 결론

알제리인의 프랑스 이주는 알제리 전쟁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대량 이주를 통해 알제리 이주민들은 프랑스 사회의 주요한 이방인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인종적·문화적·종교적 이질성으로 인해 사회에 쉽게 동화되지 않는 알제리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프랑스 정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알제리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그들은 프랑스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전후 1960-1970년대 르몽드지에서 알제리인과 관련된 기사는 알제리 국가에 대한 보도와 프랑스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보도로 나뉜다. 특히 르몽드지는 당시 사회 내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이러한 반감이 사회적·제도적 차별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공권력에 의한 인종차별 범죄의 증가는 더 이상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1968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73년 르몽드지는 프랑스의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 두 건의 기사에서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sup>47)</sup>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근시안적 이민 정책, 이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저임금 등 제도적 문제와 그들을 범죄자, 살인자, 프랑스 납세자들을 희생시켜 대우받는 파렴치한 등으로 인식하고 배격하는 사회적 인식이 복잡하게 얽혀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인종차별의 문제가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알제리 이주민은 자신들이 겪는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1972년 이후 증가하는 알제리 이주민의 정치화는 그들이 프랑스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르몽드지의 기사들은 68운동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알제리 이주민들의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저항 역시 68운동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알제리 이주민 연구자 중 한 명인 벤자민 스토라(Benjamin Stora)가 말했듯, 68운동을 이주 노동자가 결집하는 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를 그들의 정치적 저항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sup>48)</sup> 따라서 68운동과 프랑스 내 알제리 이주민의 관계성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향후 68운동과 알제리 이주민 간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는데 필요한 시기를 구분 짓는 나름의 1차 작업으로서 의미를 지니기를 바란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생, eien11@konkuk.ac.kr

47) “France-soir: ce n’est qu’un dément, mais ce dément est Algérien”, *Le Monde*, 1973.08.28.; Docteur Jacques Couniot, “Les Français malades du racisme? Certains liens existent entre le peuple algérien et la France”, *Le Monde*, 1973.09.20.

48) Benjamin Stora, “Comment les Immigrés ont eux aussi incarné «Mai 68»”.

주제어(Key words):

알제리 이주민(Algerian Immigrants), 프랑스 신문(French newspaper),  
반이주민정서(Anti-immigrant Attitude), 68운동('68 Movement)

(투고일: 2019. 04. 16, 심사일: 2019. 05. 07, 게재확정일: 2019. 05. 07)

<국문 초록>

68운동 전후 알제리 이주민과 프랑스 언론  
- 르몽드지의 알제리 이주민 관련 보도(1962년-1976년)를  
중심으로 -

이민진

프랑스에서 알제리 이주민은 오랫동안 ‘외국인’, ‘아랍인’, ‘무슬림’을 대표하는 집단으로서 반이주민정서의 주요 대상이었다. 언론 보도는 그들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중앙지인 『르몽드』에 보도된 알제리인 관련 기사들의 제목 및 내용, 보도 주제 등을 분석함으로써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인식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68운동을 전후로 하여, 1962년 알제리 독립 이후부터 그들의 프랑스 이주가 제도적으로 중단된 1976년 4월까지의 기사에 집중하였다.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인식은 전쟁으로 인한 반감, 기존 사회 구성원들과는 이질적인 인종적·문화적·종교적 요소 등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68운동 이후 알제리 이주민의 사회 운동에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러한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향후 68운동과 알제리 이주민간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는데 필요한 시기를 구분 짓는 1차 작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French mass media on Algerian immigrants before and after '68 Movement  
- analysis of Le monde article during 1962-1976 -

Lee, Minjin

In France, Algerian Immigrants is the large target of anti-immigrant attitude as an 'Etranger', 'Arab', and 'Muslim' for a long time. The media coverage provides a framework of the perception of them, but on the other hand, also influenced by the common perception in a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process of French society's perception of the Algerian Immigrants by analyzing articles about them in 《Le monde》, which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newspapers in France. In particular, I focused on newspaper articles reported from the independence of Algeria in 1962 to April 1976, when their migration to France was illegalized, around with '68 Movement.

The French Society's perception of Algerian Immigrants was influenced by antipathy due to war, and a heterogeneous element compared with existing social members like ethnic, cultural and religious factors. It is a very meaningful study to confirm whether there is a change in the social movement of Algerian Immigrants, and in French society's perception of them, after '68 Movement in which minorities were discuss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the first process to distinguish the time needed for further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68 movement and the Algerian Immigrants.

참 고 문 헌

1. 사료

Le Monde, Quotidien, Paris, 1962~1976.

2. 단행본

박단, 『프랑스의 문화전쟁』 (서울: 책세상, 2005).

\_\_\_\_\_,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엄한진, 『프랑스의 이민문제』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7).

이기라, 양창렬 외, 『공존의 기술』 (서울: 그린비, 2007).

이민·인종문제연구소 기획, 박단 엮음,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콜린 바커 외, 김용민 역, 『혁명의 현실성』 (서울: 책갈피, 2011).

Assouline, David & Lallaoui, Mehdi, dir., *UN SIECLE D'IMMIGRATIONS EN FRANCE. Troisième période 1945 à nos jours, Du chantier à la citoyenneté?* (Paris: Syros, 1997).

Dupâquier, Jacques, *HISTOIRE DE LA POPULATION FRANCAISE Tome 4*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Eveno, Patrick, *Histoire du journal "Le Monde" 1944-2004* (Paris: Albin Michel, 2004.)

Gardon, Daniel A., *Immigrants & Intellectuals: May '68 & the Rise of Anti-Racism in France* (Pontypool: Merlin Press, 2012).

Gastaut, Yvan, *L'immigration et l'opinion en France sous la Ve République* (Paris: Seuil, 2000).

Geisser, Vincent, *La nouvelle islamophobie* (Paris: La Découverte, 2003).

Lefort, François, *Du bidonville à l'expulsion: itinéraire d'un jeune Algérien de Nanterre* (Paris: CIEMM, 1980).

Silverman, Maxim, *Deconstructing the Nation: Immigration, Racism and Citizenship in Modern France* (NY: Routledge, 2014).

Silverstein, Paul A., *Algeria in France: transpolitics, race, and na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4).

Stora, Benjamin, 68, *Et Après* (Paris: Stock, 2018).



### 3. 논문

- 류지석·장세용, 「프랑스 방리유 문제와 이민자 통합정책 -차별과 배제의 공간정치-」, 『대구사학』, 제111호(2013).
- 박단, 「프랑스 공화국의 이민자 통합모델과 다문화주의 논의」,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9).
- 박선희, 「프랑스 이민정책과 사르코지(2002-2008년)」, 『국제정치논총』, 50(2)(2010).
- 성일권, 「프랑스신문의 위기 극복 방안」, 『관혼저널』, 92(2004).
- 엄한진,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2005년 ‘프랑스 도시외곽지역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2007).
- 이정옥, 「프랑스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제21집(2010).
- 임중권, 「역사 연구에서 매체의 의미-프랑스 저널리즘의 역사-」, 『승실사학』. 제21권(2008).
- Cohen, Muriel, “Regroupement familial : l’exception algérienne (1962-1976)”, *Plein droit*, n.95(2012).
- Dedieu, Jean-Philippe & Mbodj-Pouye, Aïssatou, “The First Collective Protest of Black African Migrants in Post-colonial France (1960-1975). A Struggle for Housing and Right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9, n°6(2016).
- Gastaut, Yvan, “Evolution des Désignations de l’étranger en France (1960-1990)”, *Cahiers de la Méditerranée*, 54(1997).
- Pitti, Laure, “Les luttes centrales des O.S. immigrés”, *Plein droit* 2004/4, n°63(2004).
- Robert M. Entman,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3, n°4(1993).

### 4. 웹 사이트

- <https://www.metropolitiques.eu/Les-quotas-d-etrangers-en-HLM-un.html> (검색일: 2018년 11월 02일)
- <http://www.histoire-immigration.fr/collections/1972-circulaires-marcellin-fontanet> (검색일: 2018년 11월 02일)

68운동 전후 알제리 이주민과 프랑스 언론

<https://alger.consulfrance.org/Qui-a-conserve-la-nationalite>  
(검색일: 2018월 11일 02년)

[https://www.huffingtonpost.fr/benjamin-stora/comment-les-immigres-ont-eux-aussi-incarne-mai-68\\_a\\_23418172/](https://www.huffingtonpost.fr/benjamin-stora/comment-les-immigres-ont-eux-aussi-incarne-mai-68_a_23418172/) (검색일: 2019년 02월 03일)